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30 권 9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26)	봉헌 (220)	성체 (180)	파견 (16)
---------	---------	----------	----------	---------

제1독서 | 이사 8,23c-9,3

화답송 | 시편 27(26),1.4.13-14(◎ 1ㄱ)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2독서 | 1코린 1,10-13.17

복음환호송 | 마태 4,23 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 마태 4,12-23<또는 4,12-17>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6	유 요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2/2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2/9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2/16	이 그레이스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미사책 대금: \$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50	\$47	\$1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15	김 마론/ 김 헬레나	1/11	유 요한/ 유 마리아
2/22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8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2/29	손 아놀드/ 손 쟈마	1/25	홍 마르코/ 홍 아녜스
3/7	이 글라라/ 장 글라라	2/1	김 요아킴/ 고 안나
3/14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임주빈 모니카 | KBS 심의위원, 시그니스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 서울 회장

일 년 365일 중에서 내 마음과 영혼, 몸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마음은 평화롭지만 몸이 아픈가 하면,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바람 심한 날 풍차마냥 돌아가는 통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날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언제쯤이나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으려나, 그런 날이 오기는 하는 걸까,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사 중에 문득 이 구절이 귀에 속 들어왔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야! 바로 이거야!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세계 평화를 주셨건만, 제가 그 평화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미 평화는 내 안에 있건만 그런 줄 모르고 평화가 어디 있는지 사방을 헤맨 것입니다.

마치 마테를링크의 희곡 <과랑새>에서 주인공이 과랑새를 찾아 먼 길을 헤매듯이 말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개념 또한 저마다 다르니 자기가 현재 평화로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 ‘평화’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문을 통해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롭기 위해서는 미움, 다툼, 분열이 없어야 하고 의혹과 그릇됨, 절망을 믿음과 진리, 희망으로 바꿔야 하며 어둠과 슬픔을 빛과 기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웃을 위로하고 이해하며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결코 쉬운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2월 6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시

다음 임원회의는 2월 2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둘째 주 제외)

매주 미사후 친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Homeless Feeding 2월 1일 st. Vincent de Paul center

주소: 300 Bakers St, Bakersfield, CA 93305

매년 해오던 홀리스 조식봉사를 위의 날짜에 하게되었습니다.

양말 선물을 위한 헌금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따뜻한 정성 부탁드립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미사 후 친교실에서 양말 선물 봉투를 형제 자매님과 같이 만들기를 희망 합니다.

2020년도 미사 책값 안내 (\$50)

올해 미사 책값을 그레이스 자매님께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용 영수증 신청

세금 보고용 교무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님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프란치스코 성인조차도 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을까요? 특히 용서와 일치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잘먹고 잘 살아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SIGNIS)는 바티칸 교황청의 공인단체로 TV, 라디오, 영화, 인터넷, 미디어 교육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 세계 가톨릭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협회의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총회가 2021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서울 총회의 주제는 “Peace in the Digital World(디지털 세상에서의 평화).”

전 세계 300여 명의 시그니스 회원들이 참가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인으로서, 단체로서 주님이 주신 평화를 구현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늘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나름의 해결방안을 얻어 우리 모두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서울주보에서-

복음묵상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새벽이다 -묵시 22:16-